

첨삭답안	연세대학교 2009 '창조와 파괴'	작성자	과워문들이 님
------	---------------------	-----	---------

[문항 1]

1. 우리가 사는 세계는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다. 제시문 (가), (나), (다)는 이러한 세계의 발전 과정을 창조와 파괴란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

우선 '창조와 파괴'가 역사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나), (다)는 긍정하고 있으나 제시문 (가)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가)는 세계가 시작도 끝도 없으며 오랜 세월을 거쳐 같은 궤도를 반복하는 영겁의 공간으로 인식한다. 영원한 자기창조와 자기파괴가 반복되지만 세계는 증가도 손실도 없는 가계와 같다. 다시 말해 창조해 파괴가 결국은 역사의 순환성을 시사할 뿐 본질적인 변화는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에 (나)와 (다)는 창조와 파괴가 사회의 발전에 반드시 수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에게 세계는 단순히 무와 유가 반복되는 공간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며 발전하는 공간인 것이다.

한편 (나)와 (다)는 이러한 창조와 파괴를 통한 발전방식에 대하여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다. (나)는 발전의 주체를 자본주의로 보았다. 자본주의 내부에서의 창조적 파괴가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며, 이러한 변화는 세상을 보다 윤택하고 풍요로이 만드는 긍정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2. 반면에 (다)는 혁명적 파괴는 또 다른 지배와 계급을 통한 억압을 양산한다고 보았다. 고대 노예제부터 근대 부르주아까지 기존 질서의 파괴는 새로운 계급과 투쟁을 창조해 왔으며, 이들 간의 대립을 통한 끊임없는 파괴와 창조의 과정을 통해 역사가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역시 역사 발전의 한 단계로서 본질적인 모순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나)가 자본주의란 틀 안에서 또다른 유의 창조를 위해 파괴하는 것이었다면, 3.(다)는 계급과 억압의 파괴를 통한 새로운 사회의 창조가 그 목적이란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첨삭 포인트]

1. 우선 세 제시문에서 창조와 파괴의 대상은 모두 다릅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세계, 제시문 (나)에서는 자본주의 체제, 제시문 (다)에서는 관념 그 자체이지요. 따라서 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은 오독입니다.

2. 제시문 (다)에 따르면 위의 서술하신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에서는 오로지 부르주아의 정치적 지배권 확립과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해 논하지, 고대 노예제부터 근대 부르주아 까지 혁명적 파괴가 일어났다고 서술한 답안은 비약과 추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위 주장 자체가 논리적 비약으로 평가됩니다. 제시문 (다)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이를 추론하기에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B-

[문항 2]

제시문 (나)가 더 적절한 역사 해석의 관점이다. (가)는 세계가 끝없는 순환을 거듭하는 무의지적이고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보았다. 또한 영원한 창조와 파괴가 이루어지나 결국은 그대로인 상태로 남게 되므로 역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는 역사를 타율적으로 인식하는 자세로 옳지 않다.

(나)에서 보듯 역사는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농업기술의 발전은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던 인간이 대량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로까지 이끌었다. 의학의 발전은 수많은 이들이 원인도 모른 채 죽어나가는 것을 막고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다. 기술문명의 발전은 나무로 불을 피우던 사회를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사회로 변모시켰다. 만일 (가)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발전은 반드시 후퇴를 수반하므로 오늘날 우리 역사는 태초의 석기시대에 머물러 있어야 마땅하다.

1. 무엇보다도 (가)의 가장 그릇된 부분은 바로 인간의 발전을 향한 주체적인 의지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에서 보듯 모든 '창조적 파괴'는 낡은 것을 혁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고 역사의 반화를 불가항력으로 인식하는 (가)의 태도로서는 불가능한 과정인 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의문의 질병으로 죽어나갈 때 그것을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섭리라고 여겼다면, 역사는 발전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가)는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 변화의 주체인 인간을 배제하고 있기에 타당한 해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가 창조적 파괴를 통해 이루어낸 혁신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선 (나)가 타당한 해석이 되어야 한다.

[첨삭 포인트]

1. 제시문 (가)는 역사를 순환의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이 역사의 과정에서 인간이 주체적인 의지가 결여된 존재라는 전제를 반드시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으나, 필연적으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에 비약의 가능성이 있고 이를 전제로 서술한 3문단은 전체적으로 위험합니다.

B-

총평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한 답안 서술이 아닌, 주관적 해석에 근거한 답안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시문의 사실에 근거한 답안 서술이 요구됩니다.

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환 논술 (煥 論 述)